

시연施連의 현조실록탐험 顯祖實錄探險

시조始祖의 고향을 거닐다



권오신
칼럼니스트, 운곡서원위원장

경주 남산은 정신적으로 고단한 삶을 사는 도화인들에겐 마음을 풀 수 있는 별처답 빛나는 명소다.

최근엔 경주 도심 쪽샘 지구에서 15세기에 써진 공주 무덤이 발견돼 화제가 됐다. 10살, 키 130cm, 금 은 호화 장신구로 치장하고 출자형 예쁜 금동관을 쓴 공주의 저승길 가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다. 그 공주의 장례식이 1500년 만에 재현된 것.

불교 예술은 발생지 인도에서부터 가장 먼 곳인 경주에서 꽃피었다. 질박한 돌 색깔이 그렇다. 질박하고 소박하고 불상이 짓는 미소는 사람들이 탄성을 지를 만큼 예술성을 지녔다. 그 대표적인 불상이 석굴암(石窟庵) 본존불이다.

국보 무령탑(釋迦塔)을 지은 아사달은 백제(百濟) 사람이었다. 신라인들의 꼭 넓은 마음이 잘 나타나는 석탑, 신라 사람들은 백제 사람이 지었다해서 석가탑을 파내 버리지 않았다. 석가탑 다보탑이 불국사에 남아 있어 세계문화(世界文化)유산으로 등재돼 한국을 알리는 최고 국보(國寶) 문화재(文化財)로 부상했다.

불국사 가람배치는 현실 세계와 이상세계를 연결시켜 놓았다.

안양문(安養門)을 지나면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가 세상을 내려다보는 극락(極樂)전이다. 자하문 밖 해탈문(解脫門)을 들어서면 8억 4천만 명에게 범공양을 하고도 지칠 줄 몰랐던 석가여래(釋迦如來)가 중생들을 맞는 대웅전(大雄殿)이다. 경주는 지난 천년 것을 지키면서 살아왔다. 새 천 년을 살려낸 신라 사람들처럼 백제·고구려·당나라 것도 수용, 자기 것을 만드는 폭 넓은 정신이 필요한 시기다.

알(卵)은 시작을 알리는 첫 순서다. 알에서 태어났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신라 사람들은 이 백제(百濟) 고구려(高句麗) 당(唐)나라 것도 품어 자기 것을 만드는 폭 넓은 정신문화(精神文化)를 가졌다. 알은 시작을 알리는 첫 순서다. 알에서 태어났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신라인들은 삼국(三國)을 통일시키고 세계를 놀라게 할 단초, 출발점을 만들었다. 예술의 가치는 커 신라(新羅)와 경주(慶州)를 상징적으로 내놓을 수 있었으며 그다음에 지금과 가장 가까운 서울의 왕경 유적일 것이다.

경주(慶州)엔 조선(朝鮮) 유적도 많다. 경주시 동부동에서 북부동을 잇는 경주읍성(慶州邑城)은 사적 96호로 지적돼 있었을 뿐 신라 문화재에 가려 상당 기간 그냥 버려져 있었다. 최근 들어서 복원작업에 나선 경주읍성(慶州邑城)은 조선(朝鮮)시대 군사적·행정적의 기능을 함께 했던 둘 성이다. 경주읍성은 근세까지 가장 잘 보존된 성(城)이었지만 문화재의 중요성을 잘 몰랐던 시기와 전쟁의 폐허로 혼란을 겪었을 즈음 많이 파손됐다.

국보급 신라 문화재가 수도룩한 고도여서 조선시대 유적이 천대받았던 원인 이었을 것 같다. 경주읍성(慶州邑城)이 다른 도시에 있었다면 벌써 복원이 되어서 그 지방 최대 관광지로 대접 받았을 것. 경주부 동헌(東軒)과 객사(客舍)를 중심으로 서부동에서 계림 초등학교에 이르는 성곽규모는 확인됐다. 문제는 해자 복원이다. 경주시 서부동 우방 아파트 뒤편은 해자에서 흐르는 물을 모아두는 곳이다. 이곳에서 출발한 해자는 남문 자리였던 북개천과 경주읍(경주군) 청사를 끼고 흐르는 해자의 복원이다. 이 시절 경주로 수학여행을 왔던 학생들이 패싸움을 벌이다 가끔은 해자로 떨어져 패싸움의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했던 추억이 서린 곳이기도 하다.

경주 읍성은 나쁜 진실도 간직하고 있다. 송유역불(崇儒抑佛)이란 시대적 영향으로 불교 석조(石造)유물이 엄청나게 파손시켰다. 동부동 성루 돌 틈 사이 부서진 석탑과 장대석들로 공간을 채웠을 만큼 많은 양이었다. 신라 시절에서 옮겨온 것들이어서 파손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시조 태사공 할아버지는 신라 46대 문성왕(文聖王, 839~857)의 증손자가 된다.

경주김씨(慶州金氏) 족보에 따르면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敬順王)과는 6촌(6촌) 간이다. 문성왕(文聖王)은諱 安과 휘 原 두 아들을 뒀다. 경순왕(敬順王)은 만 아들諱 安의 후손이다.始祖 할아버지는 문성왕의 둘째 아들諱 原의 아들 현기(玄起)가 아버지가 된다. 이처럼 경순왕(敬順王)과는 가까운 사이였다.

서기 930년 안동(安東) 병산전투(瓶山戰鬪)에서 高麗 군에게 삼한통일의 승기를 잡게 해 준 그해, 고려 태조 왕건(王建)으로부터 “병기달권(柄幾達權, 능히 기미에 밝고 권도통달)했다”는 격찬과 김씨(金氏)에서 권씨(權氏)로의 사성(賜姓)과 동시에 고창군(古昌郡)을 식읍(食邑, 고려왕이 공신에게 내린 땅)으로 받았다. 고창은 이때 안동부(安東府)로 승격됐다. 병산전투를 이끌었던 시조(始祖)는 병기달권보다는 증조(曾祖) 문성대왕과 조부, 부모가 묻힌 서라벌(徐羅伐)에 대한 애증(愛憎)이 깊었고 포석정에서 후백제 견훤(甄萱)으로부터 치욕적 삶을 마감한 경애왕(景哀王) 등 왕족(王族)과 라말(羅末)을 지킨 신라인에게 향한 마음이 더 커 고려(高麗)를 지원했을 것이란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

시조(始祖)의 고향길을 걷다 보면 운곡서원(雲谷書院)도 만난다.

운곡서원(雲谷書院)에 들어서면 삼문(三門)의 현판은 견심문(見心門)이다. 태사공 할아버지가 태어나서 유년기를 보낸 서라벌(徐羅伐)을 바라본다는 뜻 “통명 지방通明之方”에서 따왔다. 견(見)은 곧 시조(始祖)의 본뜻이 신라(新羅)에 있었다는 의미였다.

정조 9년(1785) 운곡서원 장건을 주찬(主贊)하신 갈산공(葛山公)은 시조가 태어나신 경주부(慶州府)에 시조를 배향할 서원(書院)을 신건(神建)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살다 40살 때 운곡 심리길, 경치가 수려하고 운제산 정기가 모이는 이곳에 입구자(口)형 서원 장건을 주찬(主贊)하셨다.

순조 11년(1811) 갈산공(葛山公)이 지은 가장 아름다운 정자 유연정(悠然亭)은 朝鮮후기를 대표하는 목조전각물이다.

단종(端宗), 사육신(死六臣) 금성대군(錦城大君) 죽림공(竹林公) 갈산공(葛山公)을 잇는 서사가 간직된 은행나무도 만나게 된다.

심장 계통은 고혈압이나 저혈압이 지나치게 변화가 나타나면 질환으로 발전된다. 또 심근 경색이나 협심증 등 심장 질환은 이른바 고랑진미(膏梁珍味)에 탐닉하는 식생활이나 산성 식품과도 관련이 있다. 제때에 자지 않아 수면이 부족하거나 잠기에 빠지는 등 무절제한 생활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상식이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는 말은 명언이다. 젊었을 때는 물론 40~50대 때는 세심한 건강 관리를 해야 한다. 요즘 들어 사람들이 건강을 위하여 등산, 달리기, 헬스 등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산행을 나서면 보통 해발 500~600m는 오르게 된다. 정상을 올랐을 때의 맥박은 1분에 130~140번 정도 뛰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몸은 가벼워진다. 심장 기능이 강화되고 건강은 증진되어 최상의 상태가 된 것이다. 자동차로 말하자면 고속 도로를 주행할 만큼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가 된 셈이다. 나아가서 술이나 음식은 더욱 맛있게 느껴진다.

그러나 술이 취하지 않는다고 마시다 보면 지나쳐서 취하기 마련이고 이때 맥박은 또다시 100~120번 이상 뛰게 되어 심장에 무리가 된다. 또 피로를 풀고 술독도 풀다고 열탕에서 땀나는 목욕을 하게 되면 심장은 이중 삼중으로 혹사와 자극을 받게 된다. 사람이 80살을 산다고 할 때 심장은 대략 30억 번을 박동하게 된다. 빨리 뛰면 그만큼 심장 기능이 약화되고 수명까지 단축될 수 있는 것이다. 맥박은 느릴 수록 좋지만 1분에 65~75 사이가 가장 좋다.

온 가족이 대한민국 국토를 가꾼다

‘건설의 날’ 장관상 수상 등 경사 겹친 건설 명문가



권태근 공학박사

대한민국의 건설 발전을 위해 온 가족이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한 가문의 이야기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아버지 권태근(북야공파 37세)씨는 지난 1981년 1월부터 24년간 조정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현장에서 탄탄한 기술과 역량을 쌓았다. 이후 2005년 1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조정공사업 법인을 설립했으며, 지난 21여 년 동안 굳건히 회사를 경영하며 대한민국 조정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평생을 아름다운 국토 경관 조성에 이바지해온 아버지는 지난 2017년 10월에 자연환경보전에 이바지한 공으로 환경부장관 표창장과 2026년 7월 9일 ‘건설의 날’에는 영예로운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는 경사를 맞이했다.

藥藥 남용과 약화藥禍, 노쇠老衰 부추겨

왜 입이 마르고, 잠이 쓰고, 손발이 더웠다 차가웠다 해질까? 쉼 살을 넘긴 사람들에게 이런 증상이 찾아오면 “이제 나도 노화가 시작됐다” 싶어 서글퍼지기도 한다. 허나 그렇게 단정할 일만은 아니다.

노화라기보단 한겨번에 이런저런 약물을 지나치게 복용한 데서 생긴 약화(藥禍)일 가능성이 크다. 하긴 약에 의존하는 까닭이 노화로 인한 생리적 산드름을 억제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이런 트러블의 근본적인 주범이 노화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상을 부른 1차적 원인은 바로 약물임을 명심해야 한다.

흔히 사람의 건강은 40~50대부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필자의 임상 경험에 비춰 봐도 이 무렵부터 각종 퇴행성 증후군이 발생한다고 보면 틀림없다.

여자의 경우 49세가 되면 생리 작용이 끝날 때이므로, 퇴행성 또는 노화 현상도 빨리 오게 된다. 이즈음 심신이 늘 편치 않고, 몸이 추웠다 더웠다 하길 반복하며, 얼굴 부위엔 미열이 느껴지곤 한다. 밤에도 숙면을 취하기 어렵고, 우울증에다 막연한 허탈, 허무감, 공허감 따위의 작잡 미묘한 감정이 얹히며 정서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혹자 말에 ‘제2의 사춘기’라고까지 할만큼 심신과 혼이 방향 아닌 방향을 겪게 되는 그런 시기다.

남자는 약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오히려 젊은이 뽀짝 정도의 완력이 생겨나, 순간의 즉발(即拔)적인 힘이 솟구치기도 한다. 무거

운 물건을 들거나, 역기나 헬스 기구를 이용한 격렬한 운동도 어렵잖게 해낸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이는 본격적인 노화를 앞둔 반사적 증후군에 다름 아니다.

실제로 55세가 지나면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정력이 전과 같지 않다. 건강 상태가 그 전과는 확연히 달라지며, 신체 전반의 노화와 쇠퇴 현상이 가속화된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찾게 되는 게 약물이다. 흔히 증상별로 약물을 찾다 보니 보통 4~5종의 약을 상시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잠이 안온다고 잠드는 약, 변이 시원찮다고 변비 해소약, 팔다리가 저린다고 해서 신경통약, 몸이 찌뿌드드하다고 해서 혈액 순환제...’ 하는 식이다.

각기 예후가 다르고, 처방이 달라야 할 이런 약을 한겨번에 복용하다 보니 무리가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신체의 균형을 잃거나, 대사가 원활치 못하게 된다. 겹겹길이나 겹는 자세부터 비정상적으로 변해, 보폭이 작아지고 몸놀림이 매우 둔하게 된다. 바짝바짝 입안이 타들어가고, 입맛이 쓰며, 손발이 늘 차갑거나, 달아오르곤 한다. 노화를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쇠현상을 부추기는 셈이다.

단언하건대, 대중적 약물은 결코 노화 방지책이 아니다. 그보단 적절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기와 혈을 함께 치료하는 기혈구허(氣血俱虛) 요법이 마땅하다. 신체의 기가 소통하고 혈류가 순환함으로써 비로소 대사가 원활하고 활력을 찾게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노화를 지연시키며, 건강한 만년을 보내기 위한 올바른 지혜가 필요한 대목이다.



덜란드 건축사이자 도시건축 연구소를 운영하는 인재로 성장했으며, 지난 2026년 6월 17일에는 한국 건축사 자격증까지 취득하며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사위(폴란드) 역시 네덜란드 건축사로서 현재 한국의 대형 종합건축사사무소에 재직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건축을 설계하고 있다.

직원 생활부터 시작해 법인 설립 후 지금까지 45년을 이끌어온 아버지의 숭고한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 조정공사업, 공기업 등 대한민국 건설의 전 분야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이 가문은 중종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은 물론, 국가 건설 산업의 귀감이 되고 있다.

「무신창의록」과 「무신역옥퇴안」에 비친 권문의 엇갈린 행보

같은 문중, 서로 다른 선택이 남긴 이 시대에 주는 역사적 교훈

권오철 (부정공파 35世·한류문화원 대표)

최근 사단법인 도윤회에서 국역한 ‘무신창의록(戊申倡義錄)’이 간행되었다. 이 책은 1728년(영조 4) 발생한 무신란(戊申亂), 즉 이인좌의 난 당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의 창 의(倡義) 과정과 활약을 담은 귀중한 사료이다.

특히 안동을 비롯한 영남 지역 유림과 사족들의 총절과 의병 활동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당시 지역 사회의 대응 양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미 제작년 붕화 지역사연구회에서 번역한 바 있다.

한편 ‘무신역옥퇴안(戊申逆獄推案)’에는 전혀 다른 기록이 남아 있다. ‘무신역옥추안’은 무신란 관련자를 조사하고 심문한 공식 재판기록으로, 반란에 가담한 인물들의 공초와 판결, 처벌 내용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두 사료를 함께 살펴보면, 뜻밖에도 같은 인동권씨 문중 안에서 나라를 위해 창의한 인물과 역모에 연루된 인물이 함께 확인된다.

1728년 3월, 소론 강경파와 남인의 일부 세력이 이인좌(李麟佐)를 중심으로 영조를 폐위하고 밀풍군(密豊君) 이탄(李坦)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은 충청도 청주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경상도·전라도까지 확산되었으나, 관군과 각 지역 의병의 진압으로 수개월 만에 평정되었다. 반란이 진압된 뒤 영조는 관련자들을 철저히

색출하도록 명하였고, 의금부와 형조는 수많은 피의자를 심문하였다. 그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 바로 ‘무신역옥추안’이다.

처음에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단순하지 않다. 이러한 모습은 오히려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현실과 봉당정치의 복잡한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적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조선 후기의 문중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가 아니었다. 같은 성씨와 같은 선조를 모시면서도 거주 지역이 달랐고, 학문을 배운 스승이 달랐으며, 혼인 관계와 교류 인맥도 서로 달랐다. 중앙 정치에서는 노론과 소론, 남인이 치열하게 대립하였고,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그대로 향촌 사회와 문중 내부까지 스며들었다.

따라서 무신란 당시 인동권씨의 서로 다른 선택은 단순히 충성과 배신의 문제로만 해석하기 어렵다. 그것은 당시의 정치 현실과 학맥, 혼맥, 지역적 기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역사적 사실에 더욱 가까울 것이다.

‘무신창의록’에는 안동과 예안, 의성, 영해 등지에서 의병을 모집하고 군량을 조달하며 토벌군을 지원한 인동권씨 인물들이 다수 등장한다. 그들은 향교와 서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이끌며 국가의 위기 앞에서 창의를 실천하였다. 이러한 공로는 이

후 포상과 증직, 정려를 통해 국가로부터 인정받았으며, 문중에서도 총절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기억되어 왔다.

반면 ‘무신역옥추안’에는 이인좌 세력과 연락하거나 군자금을 모집하고 반란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받은 인동권씨 인물들이 확인된다. 이들 가운데는 참수·교형·유배 등 중형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공초에는 당시의 정치적 인맥과 활동 상황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기록은 국가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고문이나 회유, 책임 전가 등이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바로 이 점에서 ‘무신창의록’과 ‘무신역옥추안’은 서로를 보완하는 사료가 된다. ‘무신창의록’은 국가가 총절을 기념하기 위해 편찬한 기록이고, ‘무신역옥추안’은 역모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기록이다. 두 기록 모두 각자의 목적과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어느 한쪽만으로 당시의 역사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서로 다른 기록을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사실에 접근해야 한다. 특히 족보와 문집, 서원 기록, 지방지, ‘영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등 다양한 사료를 함께 검토할 때 비로소 당시의 실상이 보다 입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실제 이제 단순 번역은 시에 의해 가능하다. 아직 엄청난 미진식 자료가 진흥원 창고에 쌓여 있다. 권문의 자료를 찾아 그 조상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제사 지내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다. (사진시 합성)

무신란은 우리 문중에도 적지 않은 흔적을 남겼다. 그러나 후손인 우리는 어느 한쪽의 역사만을 강조하거나 다른 한쪽을 의도적으로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총절은 있는 그대로 기려야 하며, 불행한 역사는 그것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것이 역사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이며, 선조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길이기도 하다.

역사는 자랑만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움만으로 단절되는 것도 아니다. 모든 역사는 있는 그대로 기록되고, 있는 그대로 이해될 때 비로소 후대의 교훈이 된다.

이번 ‘무신창의록’의 국역은 이러한 연구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무신창의록’과 ‘무신역옥추안’에 등장하는 인동권씨 인물들을 모두 정리하여 계보와 파계, 학맥과 혼맥, 거주 지역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면, 조선 후기 영남 사족 사회의 정치적 분화는 더욱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다. 더 나아가 안동권씨·풍산김씨·의성김씨 등 영남 명문가와의 비교 연구까지 이루어진다면, 무신란은 단순한 반란 사건을 넘어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정치 구조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우리 문중은 오랜 세월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며 나라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왔다. 그 역사 속에는 빛나는 총절도 있었고,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엇갈린 선택도 있었다. 후손이 해야 할 일은 어느 한 쪽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성찰하여 미래 세대에 올바르게 전하는 일이다.

‘무신창의록’과 ‘무신역옥추안’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담고 있지만, 두 기록을 함께 읽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의 역사를 만난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혈연보다 시대가, 감정보다 사실이, 편견보다 진실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국역본이 우리 문중과 지역사회에 던져주는 가장 큰 의미이며, 후손들이 깊이 새겨야 할 역사적 교훈이라 믿는다.

그리고 이인좌의 난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다시 될 것이다. 조선조 최후의 군주인조 이후 적통의 변경, 최명길과 김상헌, 그 실리주의 민본주의자인 소론, 위선적 명분론자들인 노론, 그 명과 암, 남인의 시골은둔파와 지역민들과의 갈등과 착취를 생각해 볼 일이다. 그리고 결국 그 위선적 노론에 의해 조선 말기의 암흑과 망국, 그 과정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이인좌의 난에 가담한 많은 노비들의 이야기는 결국 어디로 연결되는가. 그 저항 정신이 낳은 민주화가 결국 오늘의 코리아로 오는 길을 열었을 수도 있다. (글 권오철)